

# 영어 예열 지문: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번

Q.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.

If one looks at the Oxford definition, one gets the sense that post-truth is not so much a claim [that ①truth does not exist] as [that facts are ②subordinate to our political point of view]. The Oxford definition focuses on "what" post-truth is: the idea that ③feelings sometimes matter more than ④facts. But just as important is the next question, which is why this ever occurs. Someone does [not argue against an ⑤obvious or easily confirmable fact] for no reason: he or she does so when it is to ⑥his or her advantage. When a person's beliefs are threatened by an "⑦inconvenient fact," sometimes it is preferable ⑧to challenge the fact. This can happen at either a conscious or unconscious level (since sometimes the person we are seeking to convince is ourselves), but the point is that this sort of post-truth relationship to facts occurs only when we are seeking to assert something \_\_\_\_\_.

[3점]

\*subordinate: 종속하는

- ① to hold back our mixed feelings
- ② that balances our views on politics
- ③ that leads us to give way to others in need
- ④ to carry the constant value of absolute truth
- ⑤ that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truth itself

## [문제풀이]

첫 번째 문장에서 'not so much A as B' 구문을 통해 post-truth (탈-진실)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- truth does not exist (진실이 존재하지 않음)
- facts are subordinate to our political point of view (진실이 우리의 정치적 견해에 종속되어 있음)

이제 문장 전체에서 ①fact, truth(진실)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확인하고, 이와 대립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:

- feelings (감정)
- his or her advantage (이익)
- to challenge the fact (진실에 맞서다)

사람들은 사실을 추구하는 것보다, 위 내용들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, 이를 통해 정리된 공통점을 통해 문제의 답:

- ⑤ that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truth itself에 도달하실 겁니다. (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)

## [더 생각해봅시다]

첫 번째로 첫 문장에서 분류되는 개념의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왜냐하면, 이 기준은 객관과 주관 나누는 기준인 '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글을 읽어보시면 중간에 괄호로 나오는:

'since sometimes the person we are seeking to convince is ourselves'  
(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납득시키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)

위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또한 이 기준으로부터 파생되는 '주관 vs 객관'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시면서 글을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, 이 글의 분류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## 영어 예열 지문: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번

두 번째로, 문장에서 질문의 포인트가 'what'에서 'why'로 변하는 것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단순히 [탈-진실이 무엇인지]에서 [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]로 변하면서, 추상적인 '개념 정의'에서 구체적인 '인간의 행동'으로 시선이 이동하고, 이를 통해 독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글쓰이는 구조화했습니다.

지금까지 고려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, 해석과 선택지를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해석

Oxford 사전의 정의를 보면, 탈진실이란 진실이 '존재하지 않는다'는 주장이 아니라, '사실이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'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. Oxford 사전의 정의는 탈진실이란 '무엇인가'에 초점을 두는데, 즉 때로는 감정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. 하지만 그다음 질문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, 그것은 도대체 '왜'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이다.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분명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반대하는 게 아니며,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이다. 어떤 사람의 믿음이 '불편한 사실'에 의해 위협받을 때, 때로는 그 사실에 이익을 제기하는 것이 선호된다. 이것은 의식적인 수준이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(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납득시키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), 핵심은 사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탈진실적 관계가 우리가 진실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추구하고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이다.

### 선택지

- ① to hold back our mixed feelings
- ② that balances our views on politics
- ③ that leads us to give way to others in need
- ④ to carry the constant value of absolute truth
- ⑤ that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truth itself